

안전문화를 생활화 하자

우리의 생활이 복잡해 지면서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생각지도 않은 안전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무언가 잊어버린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삼풍사고나 씨랜드, 인천 호프집과 같은 거대한 참상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 내면서 가슴을 내리치는 충격과 부끄러움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우리는 최근 몇 년동안 잇단 대형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여러개의 이벤트성 참사말고도 고귀한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처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매년 26,000명 이상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의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전체 사인의 3위를 차지하며, 특히 45세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는 첫번째 사인이 되고 있다. 같은 산업사회에서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교통 사고 사망율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이 10배나 높고 해마다 세계토피이되는 대형사고들이 계속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빠르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오면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사람"은 잊어버리고 표피적 수치와 겉모습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빨리 잘 살아보자는 욕심은 무원칙, 편법, 무질서, 부실을 낳았고 비극적인 교훈을 쉽게 망각한채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또 내달음질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구조"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한 건축 주의 안전의식의 미비, 혹은 어떤 한 공무원의 부패로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즉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몇몇 개인이 아니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경고문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 모두가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몇몇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방지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레저와 스포츠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전생활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법규나 규제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며 일상적 삶의 구조에 "생명가치"를 우선하리라는 의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나가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때에 고귀한 생명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며 안전을 생활화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송 자

안전생활의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좁게는 우리의 경고문화, 안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이지만 넓게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구조가 사람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러한 선언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들은 세발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격언을 잘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우리들은 새천년에 안전교육을 어려서부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살 때부터 안전을 체질화시킬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사회가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는 언제시작하여야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선생님은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시작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어머님들을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어머님들을 안전지도자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어머님들을 안전지도자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기들과 연결시켜 어머님들을 교육시키면 잘 될 것이다. 자식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어머님들이 아기들을 세 살 때부터 안전교육을 잘 시키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격언대로 이 사회는 안전문화가 꽃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안전교육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생활교육이다. 반복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이 체질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교육이 이와같이 반복적인 생활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생활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중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함은 물론 사회에 안전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새천년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같이 안전생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기구들을 활성화하여 제대로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우리 스스로 실천하여 어처구니 없는 인명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도 줄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을 새천년에 제고시키기 위하여도 우리는 안전문화를 체질화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새천년에는 우리나라를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문화를 조성할 때 이는 가능한 것이다.

새천년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같이 안전생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기구들을 활성화하여 제대로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우리 스스로 실천하여 어처구니 없는 인명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도 줄여야 할 것이다.